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월 복수의 정부 기관이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법 집행 기관은 뉴욕주 전역에서 단속 캠페인 시행**

**6월에서 9월까지 주 전역에서 시행된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람의 수는 400명 이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에서 10월 한 달동안 미성년자 음주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New York State Liquor Authority) 및 뉴욕주 차량관리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는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함께 바, 레스토랑, 주류 매장 및 식품점포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면허 소매점에서 미성년자의 음주 주류관리청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류관리청(SLA)은 일부 지역에서 차량관리부(DMV) 수사관의 지원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현지 법 집행 기관이 지원을 받아 총 500개 장소를 방문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 정부기관과 법 집행 당국이 미성년자의 음주 위험으로부터 뉴욕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통해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미성년자의 음주를 책임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성과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단속 노력은 미성년자의 음주 및 가짜 신분증 사용을 막기 위해 일년 내내 진행되는 지속적 이니셔티브인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캠페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예방 작전(Operation Prevent) 캠페인에 따라 주도 지역의 사라토가 공연 예술 센터(Saratoga Performing Arts Center), 웨스턴 뉴욕의 다리엔 호수(Darien Lake) 콘서트 시설, 핑거 레이크스의 CMAC, 센트럴 뉴욕 레이크뷰의 세인트 조셉스 헬스 암피씨어터(St. Joseph's Health Amphitheater), 롱아일랜드 존스 비치 씨어터(Jones Beach Theater)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총 426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메릴랜드, 델라웨어, 로드 아일랜드, 오하이오, 메인, 테네시, 켄터키, 뉴저지,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디애나, 앨버타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가짜 신분증을 압수했습니다.

발부된 티켓의 지역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발행된 총 티켓
주도 지역	티켓 56장
뉴욕주 중부 지역	티켓 101장
핑거 레이크스	티켓 187장
롱아일랜드	티켓 82장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알코올 구매 의도로 가짜 신분증 혹은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고 그들의 운전 면허증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정지 또는 취소시켰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로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에 적발된 사업체는 위반 시마다 최대 10,000 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재범자들은 또한 주류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이나 면허 소지자는 체포되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은 주류판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깁니다. Cuomo 주지사의 이러한 단속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가짜 신분증을 구매해 미성년자 음주를 조장하는 일은 뉴욕주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위험하며 가짜 신분증 가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젊은 뉴욕 주민들에게 가짜 신분증에 돈을 낭비하고 법적 기준 나이가 되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가짜 신분증이 좋다고 한들, 숙련된 조사관들은 훈련과 장비를 이용해 이러한 사기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 Cuomo 주지사는 2019년 4월에 실시된 미성년자 음주 단속에서 뉴욕주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이 46개 카운티에서 66개의 미성년자 조사를 수행했으며, 조사관들이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851곳으로 미성년자로 가장한 유인책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유인책들은 851개 업소 중 여기 게시된 186개 업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청\(New York State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NYS OASAS\)](#)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1세 이전의 음주는 두뇌 발달을 방해하고, 20대 초반에 잠재적인 학습 장애의 원인을 초래함.
- 소년기 음주는 낮은 성적, 잦은 결석, 높은 학교 중퇴율과 이어짐.

본인 혹은 가족이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 주민은 뉴욕주의 무료 상담 전화인 HOPEline에 주 7일 24시간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단축코드 467369)로 문자를 보내서 도움을 받고 희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